

한문소설 〈布衣交集〉의 인물 형상과 소설사적 의의

李 昇 馥*

1. 序言
2. 人物 形象

3. 小說史的 意義
4. 結語

1. 序 言

〈布衣交集〉은 아직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漢文 愛情小說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유 일본이 소장되어 있다.¹⁾ 黑印欄格에 매면 10행 20자로 필사되어 있으며 전체 41장의 적지 않은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군데 군데 작은 글씨로 두 줄의 주가 달려있고, 간혹 欄上에도 주가 달려있다. 창작 연대는 고전소설사의 마지막 시기인 19세기말로 추정된다. 작품에 제시된 시간적 배경은 同治 甲子年(1864)에서 丙寅年(1866)까지인데, 이 시기와 관련된 인물이나 사건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우선 여주인공은 南寧尉宮의 시비 출신인데 남녕위는 純祖의 셋째 딸인 德溫公主의 남편 尹宜善으로 1888년에 세상을 떠난 인물이다. 또 작품 속에는 1865년에 시작된 경복궁 중건 사업이 제시되고 있으며, 1866년에 거행된 민비의 가례 준비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제한된 시간적 배경을 설정하여 당시의 인물이나 사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작자가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시기를 실제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의 창작시기는 작품 속의 시간적 배경과 그리 멀지 않은 19세기말로 추정할 수 있다.

〈布衣交集〉은 아내가 있는 李生이라는 양반가의 남자와 楊婆라는, 남편이 있는 행랑어멈 사이의 애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그 기본 설정부터가 여타의 애정소설과 다르다. 그러면서 작자는 주인공들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변전하는 심리를 적절히 포착하여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실재했던 다양한 인물군상의 행태와 사건들을 여실하게 묘사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작품의 특징은 인물의 형상화와 당시 세태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는 이 두 가지 측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 작품을 검토하고자 한다. 내용의 소개는 서사 진행 과

* 필자: 서울대학교 규장각 특별연구원

** 이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후 연수과정 연수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1) 청구기호는 <古 3477-8>이다.

정에 따른 인물 형상을 자세하게 살피는 것으로 대신한다.

2. 人物 形象

〈布衣交集〉의 중심 인물은 李生과 楊婆이다. 이외에 張進士, 堂婆를 비롯한 여러 주변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李生과 楊婆의 성격과 심리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제시되어 있다. 이제 사사 진행 과정을 쫓아가면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피기로 한다.

1) 李生

작품의 서두 부분에서 서술자는 李生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호서지방에 사는 李生이라는 사람은 양반이었지만 재주가 성글어서 남에게 용납되기 어려웠고, 뜻이 크기는 하였지만 충실하지 못했다. 나이가 사십을 넘었는데 집안 살림을 전혀 돌보지 않아 마을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매번 경치가 뛰어난 곳이 있으면 身上에 긴급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팽개치고 가서 보았다. 同治 갑자년에 세도가와 인척을 맺어 벼슬길에 나아가고자 하여 수개월 동안 유락하였는데 여러 동료들과 때로 山水를 완상하며 지은 글이 대나무 상자를 거의 채웠다.²⁾

위에서 보듯 李生은 양반가의 후손이지만 나이가 사십이 넘도록 학업에 힘쓰지 않고, 능력도 없이 놀기만 하면서 세도가의 도움으로 벼슬자리 하나 얻어 하려는 인물이다. 그러나 세도가의 도움도 여의치 않았던 듯 李生은,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인 張進士가 벼슬하던 일가에 양자로 들어갈 기회가 생기자 이를 힘써 권한다. 그리고 양자가 된 張進士가 출세를 위해 서울 竹洞의 큰 집으로 이사하자 서울로 올라와 張進士 집에 머문다. 곧 李生은 벼슬자리 하나 얻어 출세하기를 바라면서 서울의 부자나 세도가 주변을 떠도는 食客이었던 것이다. 그는 바깥사랑에 거처하면서 역시 같은 바깥사랑에 세들어 사는 堂婆라는 콩죽 장사 노파에게 서울의 풍속과 행랑채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묻기도 하는 등 하층민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자신의 거처와 가까운 대청에 행랑채의 여인들이 아무런

2) 湖西有李生者 簪纓族也 才疎而難容 志擴而未充 年過不惑 家業樛散 爲鄉里賤棄 每有山水之勝 雖身上緊急 必棄而往觀焉 同治甲子以結姻於世道 意欲自赴於雲路 遊洛數月 與諸僚時斷江山 述作殆將盈篋焉(3)

거리낌 없이 드나드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기도 한다. 곧 식객이라는 그의 처지는 그를 공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하층민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도록 한 것이다.

李生의 일상적인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은 楚玉, 곧 楊婆와의 만남이다. 楚玉은 중문 안 대청에 드나드는 행랑채 여인으로 절세가인이었다. 초옥을 본 李生은 '비록 여색을 탐할 나이는 지났으나 한 번 보자 놀라고 십분 황홀하여 춘정을 이기지 못하고 호탕한 흥취가 절로 꿈틀거렸다(雖過貪色之齡 一見驚奇 十分恍惚 不勝春情 豪興自動).' 마침내 李生은 堂婆에게 물어 楚玉의 내력과 성품, 그리고 그녀가 행랑채에 사는 양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李生은 그녀를 생각하고 보고 싶어 하면서 그녀에 대한 자신의 관심이 남의 입에 오르내릴까 두려워 楚玉을 남편의 성을 붙여 '楊婆'라고 지칭한다.

어느 날 李生이 자신의 처소에서 가까운 우물에 잠인들이 물을 길러 드나들며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호령하여 금한 일이 있었는데³⁾ 이 일이 楊婆의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된다. 李生이 호령하는 것을 본 楊婆가 이생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는 말을 계집종 達수에게서 듣자 그는 '좋은 술을 마신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거나하게 취하여 저절로 두 눈이 감기고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若飲醇醪 不覺沈醉 自然雙眼低向 不能定情).' 하루는 물을 길고 있는 楊婆를 본 李生은 楊婆에게 물이 가득찬 硯滴에 물을 붓게 하였다. 연적에 물이 가득차 있음을 보고 그 연유를 묻는 楊婆에게 李生은 "약방에 인삼이 없지 않으나 일부러 또 쌓아놓는 것은 훗날에 쓰고자 함이라 부인은 내가 아닌데 어찌 나의 마음을 아시겠소(藥房非不有 蔘而故又儲之者 待後日之用也 娘非我 安知我之心哉)?"라며 수작을 붙인다. 이후 楊婆는 화기 띤 얼굴로 李生을 대하며 李生 역시 楊婆를 그리워한다.

어느 날 楊婆가 봉선화 한 가지를 꺾어 李生 앞에 던지고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자신을 봉선화에 비겨가며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글픔을 토로하자 李生은 이 꽃으로 매파를 삼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자신의 마음을 직접 전달한다. 이후 李生은 '楊婆의 말 하나하나가 마음에 아로새겨지고, 생각지 않으려 해도 생각이 나고, 잊으려 해도 잊기 어려웠다(將楊婆之言 一一刻記于懷 不思而自憶 欲忘而難忘).' 수일 후 楊婆가 던져 준 시를 받아 본 李生은 楊婆의 詩才에 놀라며 그 내용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화답시를 쓰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李生은 옥지환과 청심환을 정표로 삼으라며 堂婆를 통해 楊婆에게 보낸다. 2, 3일 후 다시 楊婆의 시를 받아 본 李生은 堂婆를 불러 시를 배우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楊婆에게 만나기를 청하여 동의를 얻는다. 이에 李生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해가 긴 것을 닷하였다.

3) 李生은 행랑채의 사람들을 호령하고 야단치기도 하였는데 서술자는 '그러한 호령으로 楊婆의 사랑을 얻었던 것인데 남자로서 내세울 것이 넉넉하지 못한 까닭에 행랑 하인들이 종종 곤장을 맞았다'고 하여 그의 이러한 행위를 허세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그러한 행위를 긍정적으로 파악하여 이생과 결연한 楊婆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고 따라서 李生과 楊婆와의 파탄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절세가인을 한 번 보고 미혹하여 중개인물을 내세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만나게 되는 것은 사실 애정소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려는 순간 李生은 다른 주인공과 달리 다음과 같이 변민하고 주저한다.

내 집에 젊은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면 신명이 미워할 것 같으니 이를 장차 어찌하리오? 오늘밤 만났을 때 결코 속마음을 얘기할 수는 없고 먼저 다른 일을 말하여 楊娘의 태도를 살피리라.⁴⁾

해가 길다고 느끼며 楊婆와의 만남을 기다리던 李生이 이제는 아내를 생각하며 다른 여인과 연분을 맺는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끼게 된 것이다. 날이 저물자 李生은 고향 생각이 간절하여 쓸쓸함을 견디지 못한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李生의 우유부단하다거나 나약한 성격 탓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열정이客愁로 바뀌는 李生의 심적 변화는 그가 자신의 객관적 상황, 곧 아내를 고향에 두고 서울에 올라와 流落하는 중년의 식객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돌이켜 보았기 때문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李生의 객관적 처지가 李生으로 하여금 楊婆에 대한 열정을 주춤거리도록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楊婆를 만난 李生은 그녀가 시적 재능을 갖추게 된 연유와 그녀가 지은 시의 의미를 묻는 등 점잖은 태도를 취한다. 그는 楊婆가 사랑을 고백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날이 밝자 그냥 헤어지고 만다. 그리고 나서 李生은 “오늘밤 상대할 때에 좋은 관계를 만들었어야 했었는데 허송만 하고 말았으니 이는 내가 응졸한 탓이로다. 娘이 능히 마음 속으로 노여워하는 기색이 없었을까(今夜相對應有修好 而即虛送 乃吾之拙 而娘能無懷愠之色耶)?”라며 후회한다. 그리고 날이 밝은 다음 李生을 군자라 칭송한 楊婆의 편지를 받아 본 李生은 “편지의 내용이 이렇듯 엄준하니 필시 훗날에는 그녀의 뜻에 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로다(其辭緣如是峻峻 必日後難副此意也).”라며 부담스러워 하기도 한다. 하지만 楊婆에게 쏠리는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던 李生은 다시 楊婆를 만난 자리에서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였고 楊婆의 제의로 동침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李生은 楊婆에 대한 열정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객관적 인식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楊婆의 주도에 의해 애정을 성취한 다음에는 楊婆에 대한 열정에 모든 것을 맡겨 버린다.

李生은 과거를 준비하는 동료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절로 가게 된다. 李生은 弘化門 앞에 이르러 寓에서 미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또 景慕宮 앞에서 미인이 化粧한 것 같은 연꽃을 보았을 때 이별한 楊婆를 그리워하며 처연해한다. 절에 가는 동

4) 吾家有少妻 而又復用花奸 則神明似憎 此將奈何 今夜逢迎之際 切不可言內 先言外事 以觀楊娘之俯仰(20면)

안 李生은 내내 楊婆만을 생각하였고, 절에 도착해서는 음식을 들 때 젓가락을 잊어버리고 앉을 때 방석을 잊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기까지 하였다. 절에서 楊婆의 편지와 시를 받아보자 李生은 ‘눈이 뻥하고 입은 다물어져 얼 빠진 것이 마치 빈 껍질만 있는 듯했다(目瞠口噤 魂不付身 如在虛暎中).’

이처럼 楊婆에 대한 열정에 모든 것을 던져버리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李生의 내적 갈등과 번민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李生이 절에 가 있는 동안 楊婆의 남편이 楊婆와 李生의 관계를 알고는 楊婆를 마구 때리고 죽이려 하여 楊婆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런 일이 있자 친구인 成生이, 楊婆가 아랫것들에게 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니 집을 마련하여 같이 살아야 한다고 진지하게 권하였다. 하지만 李生은 가난한 형편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고, 이에 다시 성생이 친구들과 돈을 모아 주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자신에게 젊은 아내가 있으니 그럴 수 없다고 한다. 楊婆에 대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李生이 자신의 처지로 인한 내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이 과거 낙방이라는 좌절과 결합되면서 楊婆에 대한 그의 마음은自嘲 섞인 냉담함으로 변모하고 만다.

李生은 과거에 낙방하자 다시 만나자는 楊婆의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고 고향으로 내려간다. 李生은 고향으로 가는 도중 서울로 올라오는 張進士 조카 仲約을 만난다. 仲約은 이번에 서울에 가면 자기가 꼭 楊婆를 차지하고 말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李生은 “사랑에 들어온 물건이니 뭐가 어렵겠는가(入廡之物 何可難也)?”라 한다. 그러면서 그는 仲約이 부유하고 젊은데다가 재주나 용모도 楊婆가 원하는 바에 들어맞으니 楊婆를 반드시 그에게 빼앗기리라 생각한다. 나중에 中學에 근무하게 되어 상경한 李生은 안동 민씨가에 머물면서 楊婆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仲約과 사귀었으리라 지레 짐작하여 楊婆를 찾지 않는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張進士를 따라 張進士 집에 간 李生은 楊婆의 마음이 변했다는 士先의 농담에 “길가의 우물을 어찌 혼자 마실 수 있겠는가? 하물며 본래 내 물건도 아닌데(路邊井鑿 豈可獨飲 況本非我物乎)”라고 대꾸하기도 한다. 楊婆에 대한 열정과 자신의 현실적 처지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던 李生은 과거 낙방이라는 좌절을 겪자 자신의 처지를 더욱 뚜렷이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楊婆에 대한 열정이 담담하게 식어버린 것이었다. 더구나 仲約이라는 더 나은 여건을 갖춘 경쟁 상대가 나타나자 李生은 그의 승리를 아무런 의심없이 믿어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李生의 태도는 그가 楊婆라는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李生이 楊婆를 자신과 대등한 인격체로 인식했다면 이러한 일방적인 태도나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곧 楊婆에 대한 李生의 태도에는 楊婆가 하층의 여인이라는 인식이 잠재해 있었던 것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李生은 楊婆가 仲約과 긴밀한 사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신과 끊어버릴 이유가 없다는 생

각에 楊婆를 그리워하기도 한다. 우연히 楊婆와 마주친 李生은 은가락지 한쌍을 몰래 주기도 하고 堂婆의 집에서 다시 만나서는 서로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현실적 처지, 그리고 楊婆가 仲約과 인연을 맺었으리라는 오해 때문에 楊婆에 대한 李生의 애정이 과거와 같을 수는 없었다. 그는 새벽에 찾아와 달라는 楊婆의 말에 그러마고 대답은 하였지만 仲約에게 의심을 받을까 하여 楊婆를 찾지 않았다. 서술자도 이러한 李生의 태도를 두고 “만약 칠월의 광기였다면, 어느 겨울에 楊婆의 바람을 기다렸겠는가(若如七月之狂 則何暇待 楊婆之望乎)?”라고 하여 李生의 애정이 전과 같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삼일 후부터 李生은 楊婆를 찾아 사랑을 나누고, 남편에게 매를 맞은 楊婆가 수차에 걸쳐 자살을 기도하자 楊婆를 찾아 위로하여 마음을 돌리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애정은 결국 李生에 의해 완전히 파경을 맞는다. 仲約의 부탁을 받은 士先이 李生에게 楊婆가 仲約의 마음을 받아들여 해달라고 간청하는데 이 때 李生은 士先에게서 여태까지 楊婆와 仲約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으며 楊婆가 仲約을 거절하여 일시 내쫓기기도 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達수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한 ‘李生은 후회하다가 마음을 가다듬고는 아무리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아도 楊婆의 생각을 알 수 없다(生乃悔中間致意 自歎於心曰 使我思我 楊婆之見莫知也).’고 스스로 탄식하였다. 이러한 자탄에서 그가 자신의 현실적 처지 때문에 楊婆와의 관계를 체념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仲約과 楊婆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었음이 확인되었지만 楊婆에 대한 李生의 담담한 태도는 李生 자신의 내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楊婆에 대한 애정이 전과 같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李生은 마침내 楊婆에게 仲約이 간청했던 내용을 말한다. 이에 楊婆가 李生의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를 묻자 李生은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여기며 그냥 농담이었을 뿐이라고 얼버무린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마침내 두 사람의 관계는 끝이 나고 만다. 이후 張進士는 壯洞으로, 楊婆는 小竹洞으로, 堂婆 또한 六曹 앞으로 가게를 옮겨 다니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후일 육조 앞에서 堂婆를 만난 李生이 양파에게 李白의 시를 적어 보내고 楊婆가 답장과 답시를 적어 보내기도 한다. 또 閔妃의 가례 때 閔宮에 머물고 있던 李生이 예조에서 女伶으로 뽑혀 온 楊婆를 구해내고 다시 그녀의 집을 찾아 만나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丙寅洋擾로 서울 사람들이 피란을 떠나자 楊婆의 식구도 시골로 내려가고, 李生 역시 고향으로 내려가 둘 사이의 만남은 영영 끊어지게 된다.

이처럼 李生은 양파에 대한 애정과 양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신의 객관적 처지 사이에서 방황하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파경을 자초한 인물이다. 이러한 인간상은 여타의 애정소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른 애정소설의 남주인공들은 여인을 향한 열정 때문에 괴로워하기는 하지만 李生처럼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고민하면서 애정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李生과 같은 인물을 창조해 낸 것은 이 작품의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것이다.

2) 楊婆

李生이 자신의 현실적 처지 때문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인물임에 비해 楊婆는 자기의 판단에 의해 행동하는 주체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본래 南寧尉府의 시비였는데 別駕에게 배워 《通鑑》, 《史略》, 《詩傳》, 《孝經》, 《古文》 등의 책을 다 외우고, 古詩를 논하며, 《蘭雪軒集》이 입에 익숙하게 된, 뛰어난 시재와 문장력을 갖춘 여인이다. 시부 양씨가 비단을 贖錢으로 바치고 며느리로 삼았는데 남편은 一字無識의 장사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재색을 겸비하고 있으면서도 미천한 장사꾼의 아내일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 괴로워한다. 이러한 사실은 楊婆가 봉선화를 꺾어 던진 후 李生에게 한 다음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낭군께서는 제가 아니시니, 어찌 제가 꽃을 애석하게 여기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무릇 북송아꽃과 오얏꽃이 아름다움을 다투고 버들가지가 푸르름을 자랑하다가 가을이 와 쓸쓸히 떨어지는 것은 천지의 정한 이치이니 어찌 그것을 애석하다 하겠습니까? 이 꽃의 연홍빛 향기로운 자태는 사람들로부터 가히 사랑을 받으니, 궁궐에서 피어나면 귀족이나 王孫이 감상하는 바가 되고, 戚里의 집에 피어나면 반드시 名公巨卿의 노리개가 되며, 민간에서 피어나면 반드시 마을 아이들에게 꺾이는 바가 됩니다. 꽃향기는 모두 같으나 혹은 貴人의 사랑하는 바가 되고, 혹은 시골 목동의 사랑하는 바가 되니 어찌 피어난 곳이 달라서가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가히 애석하다고 한 것입니다. 人生 또한 어와 같아서 王都 가까이 사는 이는 반드시 등과하여 부귀를 이루니 어찌 才德이 나아사이겠습니까? 먼 시골에서 태어난 이는 반드시 빈천하고 迂闊하니 어찌 정성이 미치지 못해서이겠습니까? 여자 또한 그러합니다. 사대부가에 태어나면 한가하고 우아한 숙녀가 되고, 여염집에 태어나면 평범한 부인네가 되는 것이니 어찌 재모와 지덕이 서로 미치지 못해서이겠습니까? 처지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가 이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낭군의 정성을 안타깝게 여기며, 낭군의 정성을 안타까워하니 여자의 미천함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꽃이 안타까워 할 만하며 낭군도, 첩도 역시 안타까워 할 만한 것입니다. 첩은 스스로 애석하게 여길 겨를이 없지만 낭군으로 하여금 스스로 애석하게 여기도록 하려고 하나 낭군 또한 스스로 애석하게 여기지 않으시니, 겸하여 첩이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꽃을 꺾어 드려 첩의 마음을 하소연한 것입니다. 무릇 봄별의 꽃이 가을이 되어 시들어 버리는 것은 옛부터 그러하니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찌 기리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⁵⁾

5) 郎非妾 安知妾惜花之意也 夫桃李爭妍 楊柳誇綠 秋來蕭索 乃天地之常數也 但何惜之有乎 此花嫩紅芳姿 令人可愛 而生乎宮苑 則必爲公子王孫之賞 生乎戚里 則必爲名公巨卿之娛 生乎閭巷 則必爲村童牧豎之折也 同是芳香 而或爲貴人之愛 或爲村牧之愛 豈非所生之地異耶 是以可惜也 人之生亦類是也 近於王都者

봉선화가 그 피어난 장소에 따라 달리 대접받는 것처럼 사람도 그 처지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고 하면서 시골에서 태어난 李生이 현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 하고, 자신의 출신과 처지가 미천함을 안타까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李生이 스스로의 처지를 제대로 인식하여 분발하기를 바란다고도 하였다. 이와 같은 楊婆의 말에서 그녀가 자신의 처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주체적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楊婆가 李生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李生이 우물가에 모여드는 잡인들을 꾸짖어 물리친 일이 계기가 되었는데 楊婆는 이러한 이생의 행동에서 그가 비록 시골의 이름 없는 선비로 남의 집 食客 노릇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뜻이 결코 속되지 않은 인물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소년은 然諾을 중시하여
 험객과 사귀었네
 허리엔 鞞劍 차고
 비단옷엔 한쌍의 기린을 수놓았네
 아침에 明光宮을 하직하고
 長樂阪으로 말을 달리네
 渭城에서 술 사 마시니
 꽃 사이로 해가 장차 저물려 하네
 좋은 말 타고 가 기생집에서 자니
 行樂이 길이 이어지네
 누가 楊雄을 가련하게 여기리오
 문 닫고 太玄經을 초하는⁶⁾

바위 위의 오동나무
 뿌리 내린지 오래되었네
 옥도끼로 찍어내서
 칠현금을 다듬어
 거문고 한 곡조 타니

必登科成貴 豈才德之有勝哉 生乎遐鄉者 必貧賤迂 豈精誠之不逮哉 女子亦然 生乎士夫宅者 必爲閑雅之淑人 生乎匹夫家者 必爲糟糠之庸婦 豈貌德之不相及哉 使處地而然也 是以妾看此花之美 而惜郎君之誠 惜郎君之誠 而歎女子之賤也 故花可惜 而郎亦可惜 妾亦可惜也 妾不暇自惜 而欲使郎君亦可自惜 而郎君亦不可自惜 兼惜妾之不得可也 故折而獻之 又訴妾之心曲也 若夫春明之花 乘秋零落 從古而然也 何恨之有 世間豈有長生之人乎(12-13면).

6) 少年重然諾 結交遊俠人 腰間玉鞞劍 錦袍雙麒麟 朝辭明光宮 走馬長樂阪 沽得渭城酒 花間日將晚 金鞭宿娼家 行樂長留連 誰憐楊子雲 閉戶草太玄(15면)

은 세상에 뜻을 알아주는 이가 없구나
그러니 廣陵散
천고의 소리가 사라지는구나⁷⁾

이 두 수의 시는 봉선화를 두고 李生과 楊婆가 대화를 나눈 후 楊婆가 李生에게 보낸 것이다. 앞의 시에서는 《縉紳錄》을 초하고 있는 李生을, 《太玄經》을 찬한 楊雄에 비겨 비록 입신하지는 못했지만 호협하고 변화한 데 뜻을 두지 않고 높은 덕을 숭상하는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뒤의 시에서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을 탄식하면서 은근히 李生이 자신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다. 곧 楊婆는 李生을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뜻이 고상한 인물로 인식함으로써 그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이다.

이에 따라 楊婆는 李生이 옥지환을 선물하자 다시 시를 부쳐 “왜 시집가기 전에 만나지 못했는가(何不相逢未嫁時)?” 라며 탄식하기도 하고 “공명객이 되도록 힘을 쓰세요(務作功名客).” 라며 李生을 勸勉하기도 한다. 楊婆는 堂婆의 주선으로 李生과 마주 앉았지만 李生이 동침을 요구하지 않자 李生을, 붙잡은 呂后를 예로 대한 楚霸王과 두 형수를 지성으로 섬기며 예를 다한 關雲長, 그리고 伯玉, 卜子夏 등에 비겨 칭송하며 李生을 따르겠다고 한다.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李生이 동침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그가 자신의 현실적 처지를 새삼스럽게 인식했기 때문인데 楊婆는 이를 군자와 대장부의 떳떳한 행실로 여기며 李生을 따르는 것이 천지와 신명에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李生이 楊婆에 대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고 토로하자 楊婆는 ‘樂而不淫 哀而不傷’을 거론하며 먼저 동침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동침하고 이후 李生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을 쏟는다.

楊婆는 李生이 친구들과 함께 절에 갈 때에 “속담에 복 없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산으로 간다더니 진정 李郎을 이르는 것이구나(諺所謂無福者棄我上寺者 眞李郎之謂也).” 라며 투정을 부리기도 하지만 李生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시⁹⁾를 보내기도 한다. 불과 십 수일의 짧은 이별이었지만 그 동안 楊婆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시를 읊거나 멀리 푸른 산을 바라보며 상심을 억제하지 못한다. 李生과의 관계를 알게 된 남편에게 매를 맞고 낮에 찢리면서도 그녀는 자신을 탓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동료들에게 李生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

7) 石上梧桐樹 寄根歲月深 玉斧時成斫 鑲作七絃琴 琴成彈一曲 舉世無知音 所以廣陵散 千古聲湮沈(15면)
8) 昔楚伯王五年 不顧於呂后之帳 關雲長明燭達曉於二嫂之庭 凜凜大節 亘古未有 豈意今日又見郎君哉 世界上 元無英雄烈士之說 信知虛言也 夫蓬伯玉 不以冥冥閉節 卜子夏能以賢賢易色 今郎君不愛妾之色 而能愛妾之賢 推此可知 妾何福能見伯玉子夏似之君子於今世之上乎 眞妾之所願 從游也 然後能無愧乎 天地無愧乎 神明亦無愧乎 古今夫鳳飛千 飢不啄粟 丈夫之氣 郎君豈不誠大丈夫哉(23-24면)
9) 寂寂重門鎖晚愁 洞房孤枕月明秋 一匙精飯難強進 心事爲君死不休 (七言 第一首, 33면)
詩學全書滿案 憎看百語太支離 其中別字爲警最 却怨蒼皇造出時 (七言 第二首, 33면)
關河音信斷 端憂不可釋 遙想青蓮萼 山空蘿月白 (五言 第一首, 34면)
鏡匣鸞將老 花園蝶已秋 一夕紗窗閉 那堪憶舊遊 (五言 第二首, 34면)

리고 李生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 빗고 세수하고 분단장을 한다.

李生이 과거에 낙방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말투와 낯빛이 거둑 변하면서 시월에 다시 만날 것을 청하였고,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仲約에게는 전혀 마음을 주지 않는다. 李生이 다시 돌아온 후 士先이 李生을 힐난하며 仲約의 뜻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자 楊婆는 '자신의 마음은 금석보다 굳어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어 던져도 태워지지 않을 것이니 다시 말하지 말라(此心堅於金石 入水不潤 投火莫燃矣 願勿復言)'며 완강히 거절하다가 張進士 집에서 쫓겨나 길가 빈 농막에서 하루밤을 지내기까지 한다. 그러다가 堂婆의 집에서 李生을 만나자 그녀는 李生이 '서울에 온지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종내 찾아주지 않으니 자기의 마음과 같지 않음을 알겠다(見郎之來 已近一朔 終無向訪 則不如妾之心 可知矣)'고 원망하면서 자기를 찾아와 주기를 직접 청하기도 한다. 곧 李生에 대한 楊婆의 애정은, 楊婆에 대한 李生의 그것처럼 일시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李生과 다시 만나는 것을 안 남편이 楊婆를 때리고 찢러 죽이려고 하자 楊婆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겁먹은 기색이 없이 칼을 들어 스스로를 찢르기도 하고, 세 번씩이나 목을 매고 두 번씩이나 우물에 몸을 던지기도 하여 결국에는 남편까지 楊婆를 말리고 달래는 상황에 이른다. 이러한 楊婆의 행동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울분과 항거의 의미가 담긴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李生에 대한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굳고 강렬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楊婆의 태도는 李生이 군자요 대장부라는 굳은 믿음에 바탕한 것이다. 따라서 李生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애정 역시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李生이 楊婆에 대한 仲約의 마음을 거론하자 楊婆는 李生을 진중한 선비로 여겼더니 지금 보니 그렇지 않다고 하고, 이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낭군에게 있어 비록 본처는 아니지만 부부보다 더 가까운 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낭군의 마음 때문이었는데 지금 그 말씀이 어찌 망칙스럽고 경솔하십니까(吾於郎君 雖非結髮 所以交情勝於結髮者 以其心也 今何語之妄率耶)?"라며 힐난한다. 결국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사랑했던 마음이 눈이 스러지고 구름이 흩어지듯 없어지고, 금석같은 약속이 바람에 우박 떨어지듯 다시 합해지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만다(邱山之情 雪消雲散 金石之約 風飛雹零 難可復合).' 곧 楊婆의 李生에 대한 애정은 李生에 대한 신뢰에 바탕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져 버리자 李生에 대한 楊婆의 애정도 순식간에 사그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楊婆는 남편이 있는 행랑어머미에 불과하였지만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주체적 의식을 지닌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녀는 결과가 어떻든간에 李生과 자신이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주체적 판단에 의해 선택한 남자를 따랐다는 사실을 떳떳한 것으로 여긴다. 女伶으로 뽑혔다가 李生의 도움으로 存拔될 때 碧城 기생 花玉과 나눈 대화 속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제가 양남자의 명성을 들은지 오래되어 항상 한번 만나기를 바랐는데 지금 문득 서로 마

주 대하고 보니 진실된 이름 아래 거짓 선비가 없습니다. 이미 天生의 훌륭한 자질을 품부 받았고 또한 빼어난 재주를 지녔는데 알아주는 이 없는 집에 앉아 세월을 허송하는 것이 흙 속에 묻힌 옥과 같아 진실로 애석합니다. 그런데 시골의 하찮은 선비와 몰래 사귀면서 스스로 정숙한 행동이라고 여기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만약 명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려 한다면 저희들을 따라 지금의 처지를 벗어나서 초나라 물가에서 대나무를 구하고 藍田에서 옥을 캐며, 영웅호걸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奇貨異寶가 손에서 떠나지 않고, 나간 즉 은안장이 없던 백마를 타고 들어간 즉 비단 휘장과 수놓은 문이 있는 처소에 살며, 옷은 재나라 명주와 촉나라 비단으로 된 것을 입고 음식은 精飯玉粢을 먹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한 세상을 소요하고 백년을 행락하면서 음악으로 세상을 회롱하고 춤과 노래로 뜻을 편다면 죽어도 한이 없고 살아서도 빛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구구히 얽매어 정절을 구하려 하여 도리어 남에게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¹⁰⁾

일식이나 월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찌 해와 달의 밝음을 덜며, 강이나 바다가 비록 흐리다 해도 넓음에야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나의 언행이 비록 칭찬할 것은 아니나, 또한 정절에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뜻이 몇몇함을 변하게 하지 않기에 그 행동이 비록 우월하여도 근본을 이을 수 있고, 말이 도리에 어긋나지 않기에 섬기는 바가 비록 옳지 않더라도 또한 천리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이 세상에서 繁華하다고 하는 것은 옛날 포사와 양귀비가 했던 것이어서 이익을 보면 은혜를 저버리고 재물을 따라 덕을 잃어서 크게는 나라를 망치고 작게는 집안을 망쳐 저절로 허물됨이 작지 않은데 내 어찌 그것을 취하겠소?¹¹⁾

화옥은 남편을 두고 시골의 하찮은 선비를 따르는 것은 정숙한 행동이라 하기 어렵다며 그렇게 할 바에는 속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이에 대해 楊婆는 자신이 李生을 따른 것은 그것이 비록 잘한 일이라 할 수는 없을지라도 뜻이 몇몇하고 말이 도리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고 집안을 망치는 것이라며 거부한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 楊婆에게 있어 진정한 의미의 정절이란 자신의 주체적 판단에 따라 남자를 선택하고 따르는

10) 吾聞楊娘子之聲華久矣 恒願一造 而今忽相對 眞名下無虛士也 既 禀天生之麗質 又有拔萃之妙才 坐透無知之家 猶塵土之埋玉 誠爲可惜 然而潛交外鄉之一腐儒 自以爲貞行可乎 若欲爲非分之行 則可以隨俺等 擺脫身世 求竹於楚岸 采玉於藍田 英雄豪傑無不接席 奇貨異寶無不接手 出則銀鞍白馬 入則錦帳繡戶 衣則齊紈蜀帛 食則精飯玉粢 逍遙於一世之上 行樂於百年之間 絲竹以弄世 歌舞以暢意 死可無恨 生可有光 豈可區區掬束 欲求貞靜 反爲人笑耶(73-74면)

11) 日月難蝕 何損於明 河海難濁 何害於大 吾之言行 雖不足 道 亦何害於貞耶 志不變常故 其行雖迂 可以續原也 言不悖理故 所事雖非 亦不違天也 今君輩之繁華於此世 乃昔日褒姒楊妃之所爲也 見利背恩 向貨失德 大可亡國 小可亡家 自然爲累之不小也 吾何取之哉(74-75면)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한 남자만을 섬겨야 한다는 봉건적 의미의 정절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남편이 있으면서도 李生과의 만남을 떳떳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봉건적인 질곡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체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그것을 떳떳하고 당연한 일로 여긴다는 점에서 楊婆는 근대적인 개아의식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떻게 해서 양파와 같은 인간형이 등장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이다. 물론 봉건적 규범과 질서의 와해, 그리고 근대의식의 성숙이라는 역사 발전의 맥락 속에서 궁극적인 해답을 찾아야 하겠지만 권세와 경제력을 갖춘 상층의 남자가 남편의 유무에 관계없이 하층의 미모를 갖춘 여인을 취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당시의 유흥적 세대의 문제를 도외시킬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기로 한다.

3. 小說史的 意義

〈布衣交集〉은 19세기말 고전소설의 마지막 시기에 출현한 한문 애정소설이다. 愛情이라는 문제는 나말여초의 傳奇에서부터 줄곧 소설의 중요한 제재의 하나였다. 그런데 〈布衣交集〉은 전대의 한문 애정소설들인 〈李生窺牆傳〉, 〈萬福寺樗蒲記〉, 〈雲英傳〉, 〈相思洞記〉 등과 구별되는 나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물론 작자 의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작품이 고전소설사의 말기에 해당하는 19세기말의 작품이기 때문에 갖게 된 특징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布衣交集〉을 전대의 애정소설과 간략히 비교하면서 이 작품의 시대적 특수성을 검토하여 그 소설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布衣交集〉에서 楊婆가 官家의 시비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堂婆와 같이 남녀 주인공을 이어주는 매개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은 〈雲英傳〉과 〈相思洞記〉를 연상시킨다. 〈雲英傳〉의 운영은 안평대군의 사저인 壽聖宮의 宮女이고, 〈相思洞記〉의 英英 역시 檜山君宅 시녀로 궁중에서 태어나 궁중에서 자란 여인이다. 운영과 영영이 빼어난 미모에 탁월한 詩才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세상과 철저히 격리된 채 결혼도 할 수 없는 궁가의 여인들이란 사실은 애정 성취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주인공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남주인공은 위험을 무릅쓰고 越牆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雲英傳〉의 巫女와 〈相思洞記〉의 노파는 바로 남녀 주인공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인물들이다. 무녀는 金進士의 청으로 수성궁에 가서 김진사의 편지와 시를 운영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仲秋에 빨래하는 행사를 할 때 궁 밖을 나온 운영의 부탁으로 운영과 김진사를 자기 집에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한다. 영영의 이모인 노파 역시 적극적으로 남주인공 金生을 도

와 자기 집에서 김생과 영영이 상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든다. 이와 같이 <雲英傳>과 <相思洞記>의 여주인공들이 재색을 겸비한 궁가의 여인들이고, 그들과 남주인공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매개인물이 등장한다는 인물 설정은 <布衣交集>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양상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楊婆를 南寧宮의 시비로 고정시키지 않고 그녀를 남녕궁 시비 출신의 행랑어머님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이다. 안평대군이나 회산군과 같은 주인에게 철저히 예속되어 새장 속의 새와 같은 존재인 운영이나 영영보다 궁가 시비 출신의 행랑어머님은 훨씬 현실성을 갖는 존재이다. 궁가 출신이기 때문에 재색을 겸비하였고, 남편이 있기는 하지만 안평대군이나 회산군과 같은 지고한 존재가 아니며, 행랑채라는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남주인공과의 만남이 훨씬 용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곧 <布衣交集>의 작자는 전대소설에서 宮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 갇혀있던 여주인공을 현실 사회 속으로 끌어낸 것이다.

李生과 楊婆를 연결시켜 주는 堂婆의 경우 그녀는 <雲英傳>의 무녀나 <相思洞記>의 노파와 마찬가지로 李生이 전하는 정표나 시를 楊婆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한다. 그러나 堂婆의 역할과 비중은 무녀나 노파보다 훨씬 클 뿐 아니라 주인공의 요청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존재이다. 堂婆는 楊婆에 대해서 묻는 李生에게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느냐며 楊婆의 내력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楊婆와 李生이 수작하는 것을 보고는 “이 늙은이는 媿방꾼이 아니고 일을 성사시켜 주려는 사람입니다. 낭군께서 마음이 있으신지요(老身非魔嬈也 卽成事之客也 郎君有所意耶)?”라며 李生과 楊婆의 일에 스스로 나서서 인물이다. 또 堂婆는 楊婆의 남편이 楊婆에게 행패를 부린 것을 두고 욕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해를 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李生을 만나서는 울면서 지난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楊婆와 李生이 만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이처럼 堂婆는 李生과 楊婆의 관계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인물이다. 그녀가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된 이유에 대해 분명한 설명은 없다. 하지만 작품의 분위기로 보아 동거동락하는 楊婆의 처지를 동정하게 되었고, 다시 논의되겠지만 당시 하층 유부녀와 양반 남자가 서로 정을 나누는 것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현실성을 지닌 인물의 설정은 남자 주인공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雲英傳>의 김진사는 10세에 시문을 잘하여 학당에서 이미 유명하였고, 14세에 진사시에 급제하였으며, 안평대군에게서 그 재능을 인정받는 인물이다. <相思洞記>의 김생 역시 뛰어난 풍채와 재능을 가지고 있어 15세에 진사 제일과에 급제하여 公卿大家에서 사위로 삼고자 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布衣交集>의 李生은 나이 40이 넘어 벼슬자리를 얻으려고 서울 세도가 주변을 배회하는 인물이다. 때문에 堂婆가 “지금 서방님은 대체 무슨 귀인의 상이 있으셔서 저 여자가 이처럼 스스로 중매를 하는지 진실로 괴이합니다(今書房主有何貴人之相 而彼女如是自

媒乎 是誠可怪矣).”라 하기도 하며 화옥이 ‘하찮은 시골 선비’라 지칭하기도 한다. 李生 자신도 “나는 먼 시골의 보잘 것 없는 선비로 경사에 유락하면서 이렇다 할 행적도 없고 훌륭한 집의 손님이 될만한 점도 없으며 나이도 많다. 재색이 뛰어난 그녀의 입장에서 보자면 단지 草芥와 같을 뿐만이 아닐텐데 어떻게 친밀해지고 사랑과 공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 내게는 가히 천재일우라 할 만하나 정은 더 이상 두터울 수 없고 의로움 또한 더할 것이 없으니 그 하해와 같은 정성에 보답하고자 하지만 너무 부족하구나.”¹²⁾라고 스스로 탄식하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결국에는 楊婆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된다. 이처럼 전대소설에서 여인을 향한 열정만을 갖고 있는, 풍채와 재능을 겸비한 소년 문사가 아니라 열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변민하고 주저할 줄 아는 평범한 인물을 남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 역시 이 작품이 지닌 사실적인 성격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런데 전대소설과 구분되는 〈布衣交集〉의 특성은 이러한 현실성을 지닌 인물의 설정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곧 〈布衣交集〉에는 서사 진행의 중심축을 이루는 하층 유부녀와 양반 남자와의 사랑, 주인공의 주변에서 직접, 간접으로 주인공의 일에 관여하는 다양한 인물군상의 행태 등 1864년에서 1866년 사이 서울 시정의 世態가 여실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전대의 애정소설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이 작품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서사의 중심축을 이루는, 하층 유부녀와 양반 남자 사이의 사랑은 사실 불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작중 인물들이나 서술자의 시각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楊婆 스스로가 李生과의 관계를 감추려 하지 않았고, 李生도 그것을 친구들에게 애써 숨기려 하지 않았다. 堂婆 역시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이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들이 애정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애정 문제에 깊이 개입한 매개인물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돈이 있는 부자나 세력이 있는 양반이 남편의 유무를 불문하고 자색이 있는 하층의 여인을 취하는 것은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일. 곧 世態였던 것으로 보인다. 것이다.

그것은 李生과 楊婆의 애정을 바라보는 주변인물들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李生이 다시 서울로 올라와 張進士의 집에 갔을 때 달금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楊婆가 학수고대하였다고 하고, 楊婆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리자 楊婆가 한 번도 안에 들어 오지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들어오는 것은 李生 때문이라고 한다. 달금의 이러한 태도는 李生과 楊婆의 사랑이 숨겨야 할 것이라거나 혹은 부정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成生이 돈을 모아 줄테니 집을 얻어 함께 살라고 진지하게 李生에

12) 吾以遐鄉賤儒 流落於京師 無所取行 無所美家之賓 而年之晚矣 彼娘以出凡之才色 視吾 不啻若草芥 而以何有見親之密之 愛而敬之 思而慕之乎 於我 可謂千一之遇 情莫厚焉 誼莫加焉 欲報其誠 河海已淺矣(31-32면)

게 권한다거나 閔叅奉이 女伶에서 존발된 楊婆를 閔宮으로 데려가 만나질 동안이라도 李生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고 楊婆에게 음식을 주기도 하는 것은 단지 친구를 위한 호의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楊婆의 시아버지가 楊婆의 방에 李生이 와 있는 것을 보고 순순히 물러가고, 아들이 楊婆를 매질할 때에는 아들을 꾸짖어 물리치며, 楊婆가 자결하려 하자 직접 나서서 李生을 불러오고, 자결하려던 楊婆가 李生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꿔 옷자 따라 웃기도 하며, 나중에 李生이 楊婆를 찾아오자 楊婆의 방으로 들어 서로 만나게 해주는 것은, 그가 양반의 위세에 놀려 모든 것을 체념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체념의 이면에는 楊婆와 李生의 관계와 같은 일이 흔히 벌어지는 세태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楊婆가 자색이 빼어나 방물장사 아낙이 계속 감언이설을 그치지 않고 꼬이는 자도 매우 많았으며 대가집 한량들이 준 금과 비단이 산처럼 쌓였어도 한결같이 허락하지 않았다'는¹³⁾ 堂婆의 말은 이러한 세태를 직접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李生과 楊婆의 애정을 唾棄해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을 알아주는 知音과의 만남으로 파악하는 서술자의 冒頭 진술 역시 당시 세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¹⁴⁾

양반 남성과 하층민 여인과의 불륜이 하나의 세태가 되다시피 했다는 것은 도덕적 당위로서의 봉건 윤리가 와해되고 신분적 질서가 그 形骸만을 남기고 있는 봉건시대 말기의 증상임에 틀림없다. 楊婆라는 주체적 자아의식을 갖춘 근대적인 인간형의 창조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布衣交集〉이 전대소설과 구분되는 세태 반영적 특성은 다양한 인물군상의 모습과 행태를 여실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곧 세도가의 도움으로 벼슬자리 하나 얻어 하려는 門客, 행랑채에 살면서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하층민, 女伶으로 뽑혀온 미인들을 손에 넣으려는 오입장이가 그들이다.

李生의 주변에서 李生의 일에 직, 간접으로 관여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은 대개 李生과 같은 처지의 인물들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고향에서 올라와 場進士의 집에 寄食하는 張進士 조카 仲約, 호남에서 올라와 張進士 집에 머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張進士 사돈 卞氏, 그리고 민씨가에 기거하는 許進士와 尹司果, 출신과 행적이 밝혀져 있지 않은 金啓僉, 새문밖에 살면서 張進士의 집을 드나드는 張進士의 養家쪽 친척인 生원 士先 등이 李生 주변의 인물들인데 이 가운데 士先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모두 부자나 세도가의 食客들

13) 然以楊婆之絕美 方物商婦 連續不絕 甘言利說 誘之者甚衆 大家豪少金帛如山 一不聽許矣(14면)

14) 諺曰 誰爲爲之 孰令聽之 蓋鍾子期死 伯牙終身絕絃 不復鼓琴 癡人之亡 匠石永世 輟斤 不復妄斲 何則士爲知己用 女爲說己容 故老子曰 貴知我者希 揚子曰 聲之妙者 不可同於衆人之耳 形之美者 不可混於世俗之目 夫以聲形之極 猶尙如此 況其心志之所相合耶 志意一合 則雖蘇張更生 不能間其間 羽布更起 不能奪其節 豈可以利祿動哉 紅顏之美人所易合 而布衣之交 從古難得 故述此篇 以助一場之笑 而及其至也 天地神明 亦常許其誠而感應 則造物亦能猜忌乎 讀此者 庶可能憶師曠之調鍾 知音者之在後歟(2-3면)

이고 이들을 전형적으로 대표하는 인물이 李生인 것이다. 양반가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집안 살림을 팽개치고 서울의 세도가나 부유한 집에 기식하며 벼슬자리 하나 얻어보려고 하는 李生은 봉건 시대의 말기의 한 전형적인 인간상인 것이다.

王都 가까이 사는 사람은 반드시 등과하여 부귀를 이루고, 먼 향촌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빈천하여 迂闊하다는 楊婆의 말에도 드러나 있듯이 조선조말에는 京鄕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과거와 관직은 이른바 京華巨族에 의해 독점되다시피 하였다. 서울에 세거하는 閥閥들은 增廣試, 庭試, 別試, 謁聖試와 같은 부정기 시험을 통해 문과급제자를 지속적으로 배출하였고, 급제자의 分館에서도 중앙의 핵심 관직 진출이 용이한 承文院에 주로 분관되는 우대를 누렸으며, 淸職의 대표격인 史官과 淸要職의 모집단인 都堂錄도 독점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켰던 것이다.¹⁵⁾ 이러한 벌열가의 주변에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벼슬자리를 얻어 보려는 인물들이 모이게 마련인데 李生이 바로 그러한 인물들을 전형적으로 대표하는 존재인 것이다. 충청도 林川이 고향인 李生은, 벼슬하는 一家의 양자가 되고 출세를 위해 서울의 高臺廣室로 이사한 친구 張進士 집에 머물면서 李江東·閔叅奉·宋叅判·南瑞山·金黃州家와 같은 서울 양반가의 자식들과 사귀어 함께 공부를 하기도 하고, 친구의 부탁으로 책을 초하기도 하며, 中學의 하급직을 얻어 민비가 살던 閔氏家에 거처하면서 그 세도를 빙자하여 예조에서 기생을 불러 다른 식객들과 함께 놀러 하기도 하며, 그러다가 女伶으로 뽑혀 온 楊婆를 민씨가 세력을 빌어 구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布衣交集〉은 뛰어난 재능과 출중한 외모를 지닌 명문가의 후예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다른 작품들과 달리 1860년대 서울의 세도가 주변에 실재했던 주변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의 의식과 행동을 깊이있게 파헤치고 유사한 처지에 놓인 인물군상들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인물군상인 대도시 하층민의 모습을 張進士 집 행랑채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다. 장진사 집의 바깥 사랑과 행랑채에는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하층민들이 살고 있는데 楊婆도 그 중의 하나였다. 행랑채의 남자들은 아직 해가 뜨지 않은 罷漏 직후 이른 새벽에 땀나 무를 지고 강으로 나가 장사를 하고, 여인네들은 집안에 모여서 바느질을 하거나 솜을 타거나 다듬이질을 한다. 李生이 楊婆와 새벽에 만나 정을 주고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남편이 일찍 장사를 나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행랑채의 사람들은 李生의 호령을 들으며 매를 맞기도 하고 李生과 楊婆의 일을 수군거리기도 하고, 또 아내를 양반 食客에게 빼앗겨도 아무런 항거를 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작품의 말미에서 민비의 가례를 위해 예조에서 각관에 있는 기생들을 모으고, 또 良家の 여자 가운데 出嫁하여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여인들을 女伶으로 뽑아 채주를 가르치는데

15) 車長燮, 朝鮮後期閥閥研究, 一潮閣, 1997, pp. 272-4.

楊婆가 女伶으로 뽑혀오게 된다. 작자는 注로 처리된, 李生과 尙眞이라는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女伶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곧 女伶으로 뽑히면 본남편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도 관계가 없는데 그것은 女伶 가운데 집안이 넉넉한 사람은 몸종과 남편이 지키고 별도의 下處에서 지내기 때문에 오입장자들이 얼씬거리지 못하고 의복이나 머리장식 등을 스스로 마련하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는 女伶은 그것을 마련해주는 오입장자에게 넘어가 본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楊婆는 自備할 수 없는 형편이고 재색을 겸비하였기 때문에 오입장자들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이때 한 번 놀기 위해 아름다운 기생을 뽑으려 예조에 간 李生이 이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李生이 楊婆와 이야기를 나누자 구름처럼 모여든 오입장이들에 의해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민궁의 청지기가 민씨가의 세도를 빌어 그들 중 하나의 뺨을 후려쳐 쫓아내었다. 이러한 楊婆의 女伶 선발과 존발 과정은 국가적 차원에서 가해지는 평민 부녀자에 대한 수탈상, 그리고 그녀들 주변에 모이는 이른바 ‘日字牌’로 불리는 중서층 오입장자들의 행태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布衣交集〉은 〈雲英傳〉이나 〈相思洞記〉와 같은 작품들의 기본 설정을 따르면서도 주인공들을 이상적인 才子佳人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현실적인 존재로 형상화하였을 뿐 아니라 실재하는 주변 인물군상의 모습과 행태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는 남녀 주인공의 인물 형상의 성공과 함께 한문 애정소설이 마지막으로 거둔 성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4. 結 語

이상으로 19세기말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문소설 〈布衣交集〉의 人物 形象과 그 小說史的 意義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작품이, 자신의 현실적 처지와 여인에 대한 열정 사이에서 변민하는 李生, 그리고 자기의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근대적 의식을 소유한 楊婆라는 남녀 주인공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였고, 작품의 시간적 배경인 1860년대 서울 시정의 모습과 세태를 여실하게 그려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작품의 존재를 알리고, 그 내용적 특성을 검토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심도있게 논하고 평가하는 데는 미흡한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문소설과 판소리를 포함한 보다 많은 작품들과 치밀하게 비교하고 당대의 사회상과의 관련을 상세하게 검토함으로써 본고의 논의를 심화하고 검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삼는다.